

아동기의 까다로운 기질 연구

-A Study on the Difficult Temperament of Childhood-

수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조 교 수 최 영희

The University of Suwon, College of Human Ecology,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Assistant Professor : Choi, Young-Hee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research was focused on the identification of difficult temperament of childhood. In order to identify the difficult temperament of childhood, 336 of 3 and 6 graders were investigated. The difficult temperament of childhood was defined as the characteristics which were perceived as difficult for taking care of by mothers, related to negative mothers' attitude, and related to the children's low competence.

Mothers felt difficult in caring for the children with high activity and negative mood. Mothers showed negative attitude to the children with negative mood and low persistence. And the children with unpredictability and low persistence had lower perceived competence. In short, high activity, unpredictability, negative mood, and low persistence might be said as difficult temperament of childhood. These temperament categories-activity, predictability, mood, and persistence-appeared as one factor in factor analysis. Unpredictability, negative mood, and low persistency were shown as the difficult temperament in other studies, but high activity should be examined more carefully.

I. 문제제기

까다로운 기질은 '부모에게 돌보기 어렵게 여겨지

는 특성'이라고 간단히 정의된다(Carey, 1986). 출생 직후부터 기질에 개인 차가 나타나며, 까다로운 기질을 보이는 영아의 부모는 영아와 상호작용을 덜하

고 아기의 요구에 덜 반응적이었다(Campbell, 1979; Dunn & Kendrick, 1980; Milliones, 1978). 까다로운 기질 유아는 부모로부터 더 많은 통제를 받았으며(Lee & Bates, 1985) 애정적 양육을 적게 받았다(최영희, 1995). 이러한 부정적 양육은 까다로운 기질을 더욱 강화하여 문제행동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크게 한다(Cameron, 1977; Lee & Bates, 1985; Thomas & Chess, 1983).

그렇다면 어떠한 기질이 부모에게 돌보기 어렵게 여겨지는가? Thomas 등(Thomas, Birch, & Chess, 1968)은 뉴욕종단연구(NYLS)를 통해 기질을 아홉 영역으로 하고, 그 중 다섯 영역을 기준으로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늦답는 기질 등을 분류하였다. 생리적 주기가 불규칙하고(Rhythmicity), 낮 선 것에 접하면 위축되고(Approach-Withdrawal), 적응이 어려우며(Adaptability), 기분이 부정적이고(Mood), 정서 표현이 격렬한(Intensity) 특성이 까다로운 기질이라 하였다. 많은 기질 연구자들이 Thomas 등의 NYLS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전시켰으며, 기분이 부정적이며 적응성이 낮은 것을 까다로운 기질로 인식한다는 데 일반적인 동의가 있어왔다(Hubert & Wachs, 1985).

그러나 위의 까다로운 기질 특성들이 모든 연령의 아동들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걸음마기 때 신체 움직임이 활발하여 아무 곳에서나 뛰어다니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며 부모에게 돌보기 어렵게 여겨지나 학동기에 신체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한가지 일에 주의를 집중하는 지구력이 취학 전에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나 학동기에는 지구력이 학습과 관련되고, 따라서 학동기 아의 부모는 지구력이 낮은 아동을 불만스럽게 여긴다.

Thomas 등은 영·유아기의 까다로운 기질 특성은 규정하였으나 아동기의 까다로운 기질은 규정하지 않았다. 즉, 아동기에는 부모에게 돌보기 어렵게 여겨지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지 않았다. 아동기에도 영·유아기와 같은 특성들이 까다롭게 여겨지는지, 혹은 다른 특성이 까다로운 기질로 여겨지는지를 규명하지 않았다.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기질 연구는 양육자에게 돌

보기 어렵게 여겨지는 특성이 무엇이며, 양육행동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조사하기보다 기질과 발달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리고 부정적 발달과 관계되는 기질 특성을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보았다. 기질 특성과 아동기의 문제행동(Caspi & Silva, 1995), 자기능력지각(최영희, 1994; Windle, Hooker, Lerner, East, Lerner, & Lerner, 1986), 학업성취(Guerin, Gottfried, Oliver, and Thomas, 1994; Palisin, 1986) 등을 설명하려 하였고, 문제행동, 낮은 자기능력지각, 그리고 낮은 학업성취와 관계되는 기질 특성을 까다로운 기질로 보려하였다.

아동기의 기질 조사에 양육의 변인을 고려할 때는 양육행동 자체보다 아동의 기질이 양육자의 기대와 어느정도 조화를 이루는가를 조사하였다. 아동의 기질이 주변의 기대와 조화를 이룰 때(Goodness-of-Fit) 긍정적 발달이 있게되며,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Poorness-of-Fit) 부정적 발달이 있게 된다는 것을 검증하려 하였다(김정민과 윤진, 1992; 최영희, 1994; Windle et al., 1986). 즉, 까다로운 기질과 부정적 발달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려하기 보다 기질과 양육과의 조화로운 합치 정도와 발달과의 관계를 밝히려 하였다. 이러한 '조화의 적합성(Goodness-of-Fit)' 개념에는 까다로운 기질 개념 대신 조화의 불일치 개념으로 아동의 발달을 설명하려 한다. 기질 특성과 환경의 요구가 조화를 이루면 긍정적 발달을 이룰 것이며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부정적 발달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을 검토하려 하였다. 그러나 기질과 환경의 조화로운 합치 정도로 발달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그리 만족할 만하지 못하였다(Lerner, Lerner, & Zabski, 1985). 기질과 환경의 조화 정도보다 기질이 직접 아동의 심리 사회적 발달과 상관되고 있었다(최영희, 1994).

이상과 같이 아동기에는 기질과 발달과의 관계를 조사하거나, 기질과 양육과의 조화로 발달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했다. 기질과 양육태도와의 관계는 영·유아기를 대상으로 연구되었고 아동기의 기질과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은 접하기 어려웠다. 본래, 까다로운 기질 개념은 '부모에게 돌보기 어려운 특성'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아동기에는 부모가 까다롭다고 여기는 자녀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조사하는데 소홀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까다로운 기질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세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부모에게 돌보기 어렵게 여겨지는 특성이 무엇이며, 둘째, 부모의 태도와 상관되는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끝으로 아동의 발달과 상관되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제기하였다.

1. 어머니가 돌보기 어렵게 여기는 아동의 특성은 무엇인가?
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상관되는 아동의 기질은 무엇인가?
3.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상관되는 아동의 기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특성

Thomas 등(1968)은 영·유아기에 생리적 주기가 불규칙하며, 낮 선 상황에서 위축되고 적응을 못하며 기분이 부정적이고 정서 표현이 격렬한 특성이 부모에게 돌보기 어렵게 여겨진다고 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특성들이 하나의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후의 문제 행동과 상관되는 까다로운 기질이라고 하였다(Thomas & Chess, 1983).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3세 아의 경우에는 Thomas 등이 말한 기질 특성들인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기분 그리고 반응성이 하나의 첫번째 요인으로 나타났으며(최영희, 1991), 6개월과 13개월 아의 경우에는 접근성, 적응성, 기분, 활동성이 주요 요인이었다(최영희, 1989).

한편 Hubert와 Wachs(1985)는 영아의 어떠한 점이 다루기 어렵게 여겨지는가를 자유 반응하게 하여 얻은 결과를 Thomas 등의 기준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기분과 낮은 적응성이 어머니가 돌보기 어렵게 인식하는 특성이라고 보고하였다. Bates 등(Bates, Freedman, & Lounsbury, 1979)은 신체 움직임 정도

가 심하고 아기 울음을 달래기 어려운 특성을 까다로운 기질이라 하였으며, 이는 Thomas 등이 말하는 부정적 기분과 격렬한 반응성과 유사하다고 하였다(Bates, 1980).

영·유아기에 위와 같은 특성이 부모에게 돌보기 어렵게 여겨지는 데 비해, 아동기에 부모에게 까다롭게 여겨지는 특성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접할 수 없었다. 이는 까다로운 기질 개념이 원래 영아 초기의 특성으로 성장 후의 발달을 예측하고자 함에서 비롯되었고, 영아 초기부터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특성이 성장 후의 문제행동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었으므로, 영·유아기에는 부모에게 돌보기 어렵게 여겨지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밝혀려는 연구가 활발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성장 후의 까다로운 기질 개념은 부모에게 돌보기 어렵게 여겨지는 특성을 조사하기 보다 부정적 발달과 관계되는 특성을 조사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특성은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기의 까다로운 기질이 어떠한 특성인가를 밝히고자 하였으므로 부정적 발달 뿐 아니라 부모가 돌보기 어렵게 여기는 특성도 함께 조사하고자 하였다.

2. 까다로운 기질과 양육태도

기질은 환경에 대처하는 행동방식(Thomas et al., 1968)으로서 양육행동을 변화시킨다(Carey, 1986)는 관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질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이 누적되어왔다. 기질이 출생 초기부터 개인차를 보이는 특성이며 그 개인차가 양육행동의 차이와 상관된다고 보았으므로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는 주로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까다로운 기질을 지닌 영아의 어머니는 영아의 신호에 덜 반응적이었으며(Milliones, 1978),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적고(Campbell, 1979; Dunn & Kendrick, 1980), 강압적 통제를 더 많이 받고 있는(Lee & Bates, 1985) 등, 까다로운 기질 영아는 어머니로부터 부정적 양육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까다로운 기질 영아가 오히려 어머니의 몰입된 접촉을 더 많이 받는다는 보고도 있다. Crockenberg와 Smith(1982)는 신생아기에 성급했던 아기는 3개월 때의 관찰에서 어머니의 몰입된 접촉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하였다. 어머니들이 성급한 아기를 회피하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Bates 등(Bates, Olson, Pettit, & Bayles, 1982)의 조사에서 까다로운 영아는, 비록 그 상관이 미약하긴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애정어린 접촉과 물체 자극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희(1990)의 연구에서, 4개월에서 8개월 된 까다로운 영아의 울음소리는 어머니들에게 달려주거나 안아주어야겠다는 반응을 불러 일으킨 반면, 순한 영아의 울음소리는 가능하면 혼자 내버려두겠다는 반응을 하게 했음을 볼 때도 까다로운 영아는 오히려 어머니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할 것이고 추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음을, Crockenberg(1986)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육자가 아기의 까다로움에 다른 반응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처음에는 아기가 울 때 어머니가 상당히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울음이 계속되고 어머니가 기진맥진해지면 몰입을 덜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생아기나 영아 초기에는 까다로운 기질 아에게 더 많은 반응과 접촉을 하기도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은 반응과 강한 통제를 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기질과 양육태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이처럼 영아기에 집중된 데 비해 유아기와 아동기에 조사된 것은 드물었다. 3세 유아에게 과제를 지도하면서 보이는 교수행동을 관찰한 바에 따르면 까다로운 기질 유아의 어머니는 순한 기질 유아 어머니보다 지시를 많이 하고 있었으며(최영희, 1990), 애정적 태도를 덜 보이고 있었다(최영희, 1995). 까다로운 아동의 어머니가 애정적 태도를 덜 보이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최영희, 1993). 천희영(1992)은 3세에서 7세 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조절 결함형 유아의 어머니가 조절형 유아 어머니보다 통제적 양육유형에 더 많이 있었음을 보

고하면서, 조절 결함형 아동은 지나치게 활동적이며 반응을 예민하고 강하게 보임으로써 어머니로 하여금 통제적인 양육유형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하였을 것으로 논의하였다.

3. 부정적 발달과 상관되는 특성

아동기의 까다로운 기질 연구는 부모가 돌보기 어렵게 여겨지는 특성을 조사하기 보다 부정적 심리사회적 발달과 관련되는 기질 특성을 규명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아동의 내향적, 외향적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특성을 조사한 연구(Caspi & Silva, 1995)는 통제력 부족이 문제행동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통제력 부족은 주의가 산만하고(Distractibility) 성급함(Irritability) 기질 특성이었다. 통제력 부족 이외에 남아는 새로운 상황에서 위축되는 특성인 접근성이 내향적 문제행동과 상관되는 반면, 여아는 굼뜰 특성(Sluggishness)이 내향적, 외향적 문제행동과 모두 상관되었다.

사춘기의 우울증과 관련되는 기질 특성은 접근·철회, 적응성, 기분, 규칙적 습관, 주의산만, 및 지구성이었다(Windle et al., 1986). Windle과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의 요구와 자녀 기질의 적합성 정도로 우울증을 설명하려 한 김정민과 윤진(1992)은 접근성이 우울증을 강력히 예언하였으며 섭생의 규칙성 역시 우울증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로 아동기의 문제행동이나 우울증은 주의산만, 습관의 규칙성, 부정적 기분, 그리고 접근성과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의가 산만한 특성은 영·유아기에는 까다로운 기질 특성 범주에 속하지 않았으나 아동기와 사춘기에는 부정적 발달과 상관되는 특성으로 나타나 있었다.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 관련된 특성으로 조사한 연구들(Windle et al., 1986; 최영희, 1994)은 기질과 자기능력 지각 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적응성과 기분, 그리고 작업 지향성은 자기능력 지각과 뚜렷하게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작업 지향성(task orientation)은 과제에 집중하고 다른 곳으로 주의를 흐트리지 않는 것으로서 Thomas

등(1968)의 지구성과 주의분산도와 같은 특성으로 보여진다.

한편 아동기에는 인지능력이나 학업성취가 중요한 발달 측면이므로 어떠한 기질 특성이 그들과 관계 있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Martin 등(Martin, Nagle, & Paget, 1983)의 연구에서 지구성, 주의분산도, 적응성은 지능을 통제한 후에도 표준화된 능력검사와 교사 평점을 예측하였으며, 특히 활동수준과 지구성이 학업성취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다른 많은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논의하였다(Martin & Holbrook, 1985). Guerin 등(1994)은 학습에 관련된 기질 특성은 생활습관의 규칙성, 적응성, 지구성, 그리고 주의분산도로 나타났으며, 지능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기질 특성들이 학업성취의 5-10%를 설명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학습과 관련된 기질 특성 구성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으나 지구성은 모든 연구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었다. 지구성이 학업 성취와 관련된 특성임은 유아의 경우에도 그러했는데, 48개월 아의 기질과 표준화된 지능검사와의 상관을 본 Palisin(1986)은 지구성만이 Stanford-Binet, WISC-R, 그리고 PIAT의 세 검사 모두와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지구성은 지능이나 학업 성취 뿐 아니라 인지양식과도 상관이 있었다(Goldstein, Rollins, & Miller, 1986). 충동성과 사려성의 인지양식 검사에서 총 실패 점수와 지구성이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적응성과 주의분산도도 학업과 상관이 있는 특성이었다. 주의분산이 높은 것, 즉 집중력이 낮은 것과 적응이 낮은 특성은 낮은 학업성취를 예언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아동의 발달과 기질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까다로운 기질이 아동의 부정적 발달과 상관되는 특성이라 볼 때, 문제행동과 일관된 상관이 보고된 특성은 규칙적 습관, 접근성, 적응, 기분, 주의산만이며, 자기능력 지각과 상관되는 것은 적응성, 기분, 그리고 지구성이었고, 학업성취와 관련되는 것은 지구성, 적응성, 주의분산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규칙적 습관, 접근성, 적응성, 그리고 기

분은 영·유아기의 까다로운 기질 특성 범주에도 속하는 것이었으나 지구성과 주의분산도는 그렇지 않다.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는 지구성과 주의를 다른 곳으로 쉽게 돌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주의분산도가 영·유아기에는 심리 사회적 발달과의 관계가 미약하였으나 아동기에는 자기능력지각과 학업 성취를 설명하는 주요 특성으로 보고되었다.

III. 연구방법

경기도 과천과 안산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336명의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학년 학생이 134 명(남아 66명, 여아 68명)이었고 6학년 학생은 202명(남아 102명, 여아 100명)이었다. 아동에게는 자기능력지각을 평정하도록 하였고, 어머니에게는 자녀의 기질과 자신의 양육태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기질은 Hegvik 등(Hegvik, McDevitt, & Carey, 1982)이 8-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제작된 MCTQ(Middle Childhood Temperament Questionnaire)로 조사하였다. 이것은 부모의 보고로 기질을 측정하도록 제작된 것이며 9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주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6점 척도로 되어 있다. 이 도구로 서울의 초등학교 3학년 아동 42 명의 어머니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양호도가 낮거나 응답이 한 쪽으로 편중된 문항들을 제외한 49 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MCTQ는 Thomas 등(1968)의 아홉 기질영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써 각 영역의 특성과 문항 수, 높은 점수의 의미와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MCTQ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2로써 높은 수준이었다. 하위영역 별로는 활동성, 예측성, 기분, 그리고 지구성은 .60에서 .71로 높은 편인데 비해, 주의분산도, 반응강도, 적응성의 신뢰도는 .42에서 .48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는 그 영역들의 문항수가 적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MCTQ에는 또한 자녀를 다루기 어려운 정도를 질문하는 한 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번 더 질문하여 돌보기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

〈표 1〉 MCTQ의 기질영역 별 의미

기질영역	문항수	기질 특성	높은점수 의미	신뢰도
활동성	6	하루에 신체를 움직이는 정도	활동적	.71
규칙성	6	행동이나 습관이 일관적이고 규칙적인 정도	불규칙적	.62
접근성	6	새로운 사람, 장소, 사건에 접했을 때의 반응	위축-회피	.57
적응성	5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쉬운 정도	변화가 어려움	.48
반응강도	5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강도	격렬한 반응	.42
기분	6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기분이 많이 나타나는 정도	부정적 기분	.60
지구성	5	한가지 과제나 활동을 지속하는 정도	지구성이 낮음	.63
주의분산도	4	외부 자극에 의해 주의가 흐트러지는 정도	주의가 산만함	.44
반응역	6	외부 자극에 민감한 정도	자극에 민감함	.55
전체	49			.82

를 두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질 질문 전에 묻고, 기질 질문 후에 다시 물음으로써 응답 방향의 탄성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정도를 묻은 두 문항의 일치도는 .92로써 응답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정현희(1990)가 제작한 것으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아동이 응답하게 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양육태도를 질문하는 형식으로 바꾸어 어머니의 응답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원래의 도구는 총 44문항으로, 민주·자율적 행동이 28문항, 기대·간섭적 행동이 6문항, 온정적 행동이 6문항, 그리고 불안·복종적 행동이 4문항이었다. 다른 행동에 비해 민주·자율적 행동 측정 문항이 많았으므로 민주·자율적 행동의 28문항 중 6문항을 선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문항 선택은 아동학 전공자 2인에게 안면타당도가 높은 문항을 선택하도록 의뢰한 후 중복되게 선택된 문항을 선정하였다. 민주·자율적 행동 이외의 문항들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주·자율적 행동이 6문항, 기대·간섭적 행동이 6문항, 온정적 행동이 6문항, 그리고 불안·복종적 행동이 4문항으로 총 22문항을 질문하였다. 높은 점수는 민주·자율적 행동이 낮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간섭이 많고, 온정적인 면이 적고, 자녀의 일을 지나치게 걱정

하고 자녀에게 복종을 하는 것으로 부정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 도구의 내적 합치도인 cronbach α 값은 .78이었다.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Harter(1982)의 자기능력지각 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신체적 능력, 일반자아가치의 네 영역을 조사하고 있다. 인지적 능력은 학업성적이 좋고 교실에서의 수행에 관해 좋게 느끼는 것이며, 사회적 능력은 친구가 많고 반에서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여기는 것, 신체적 능력은 운동을 잘하는 것이고, 일반자아가치는 자신감이 있고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높은 점수는 자기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자기능력지각 척도의 내적 합치도인 cronbach α 값은 .83이었다.

IV. 연구결과

1. 어머니가 돌보기 어렵게 여기는 특성

어머니가 다루기 어렵게 여기는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 아홉 기질 영역과 어머니가 돌보기 어렵다고 응답한 정도와의 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먼저 아동 전체를 보면 아홉기질 영역 중 주의분산도를 제외한 여덟 영역이 어머니가 다루

〈표 2〉 돌보기 어려운 정도(까다로움)와 기질영역과의 상관

	활동성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 강도	기분	지구성	주의 분산도	반응역
전체	.34**	.19**	.19**	.19**	.17*	.40**	.16*	-.12	.16*

* p < .05, ** p < .01

〈표 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기질과의 관계

	활동성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 강도	기분	지구성	주의 분산도	반응역
온정적	.16*	.12	.17*	.17*	.08	.20**	.23**	-.06	-.08
민주·자율적	.07	.21*	.03	.12	.03	.18*	.35**	-.04	-.16*
기대·간섭적	.32**	.34**	.20**	.10	.15	.32**	.28**	.13	.08
복종적	.30**	.31**	.22**	.19**	.16*	.28**	.26**	.20**	.28**

* p < .05, ** p < .01

기 어렵게 지각하는 것과 상관이 있었다. 활동수준이 높고, 생활습관이 불규칙하며, 새로운 것에 접하면 위축되고, 행동 변화를 잘하지 못하며, 정서 표현이 격렬하고, 부정적 기분을 많이 보이며, 지구력이 낮고, 외부 자극에 민감한 특성이 부모에게 다루기 어렵게 여겨지고 있었다. 특히 활동수준이 높고 부정적 기분을 많이 보이는 것이 까다로움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2. 기질과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상관되는 아동의 기질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그 둘의 상관을 구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기분과 지구성이 양육태도와 높은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분과 지구성의 높은 점수의 의미는 부정적 기분을 많이 보이고 지구력이 낮은 것이다. 어머니의 태도에서 높은 점수는 온정적이지 않고, 민주·자율적 행동이 낮으며, 자녀에 대해 기대·간섭적이며, 불안·복종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부정적 기분을 많이 보이고 지구력이 낮은 아동의 어머니는 따뜻하지 않고, 민주·자율적 행동을 적게 보

이고, 기대와 간섭을 많이 하며, 자녀의 뜻에 복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기대·간섭적 행동과 복종적 행동이 온정적이거나 자율적 태도보다 기질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복종적 행동은 아홉 기질 영역 모두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활동량이 많고, 생활이 불규칙하며, 위축되고, 행동을 고쳐주기 어려운 등의 돌보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 자녀에게 어머니는 불안해 하고 결국은 자녀의 뜻에 따르는 복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3. 기질과 자기능력지각

끝으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기질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자기능력지각은 아동이 평정한 것이며, 기질은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을 평정한 것이다.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생활습관이 규칙적인 아동이 인지적능력, 사회적 능력, 일반자아 가치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지구력이 높은 아동은 인지적 능력과 일반자아 가치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그외에 새로운 것에 두려움 없이 접근하는 특성이 사회적 능력과, 그리고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것이 인지적 능

〈표 4〉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기질과의 관계

	활동성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 응 강 도	기 분	지구성	주 의 분 산 도	반 응 역
인지적능력	-.07	-.18*	.01	-.18*	.02	-.02	-.21**	-.12	.14
사회적능력	-.03	-.15*	-.17*	-.10	-.01	-.10	-.15	.03	.04
신체적능력	.13	-.08	-.08	-.04	-.03	.02	-.05	.06	.04
일반자아가치	-.03	-.23**	.07	-.02	-.02	-.07	-.24**	-.08	.06

* $p < .05$, ** $p < .01$

력과 상관되었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동기의 까다로운 기질이 어떠한 특성인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까다로운 기질을 알기 위해 세 방향의 접근을 하였다. 어머니가 돌보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특성,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관계되는 특성, 그리고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관계되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까다로움, 어머니의 양육태도, 그리고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두드러지게 높은 상관을 보이는 기질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수준이 높고 기분이 부정적인 기질이 부모에게 특히 다루기 어렵게 여겨졌다.

둘째, 활동수준이 높고, 생활습관이 불규칙하며, 기분이 부정적이고 지구력이 낮은 아동의 부모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여 예측할 수 없고, 지구력이 낮은 특성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관계가 있었다.

요약하면 활동성, 규칙성, 기분, 그리고 지구성이 본 연구에서 제기했던 문제들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기질영역들이 요인분석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난 점이다.

MCTQ 제작자들은, 질문지와 함께 보내온 개인적 서신에서 MCTQ를 요인분석하는 것을 삼가도록 부탁하였다. 따라서 요인분석된 요인으로 연구문제들을 분석하는 것을 피했다. 본 연구문제의 분석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아홉 기질영역들 간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주성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가 1.0이 넘는 요인이 3개 추출되었으며, 첫번째 요인이 활동량이 많고, 생활습관이 규칙적이지 못하며, 부정적 기분을 많이 보이고 지구성이 낮은 특성이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본 연구문제들의 분석에서 까다로운 기질 특성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것은 Thomas 등(1968)이 영아기의 까다로운 기질을 정의한 것과 차이가 있다. 활동수준과 지구성이 영아기에는 까다로운 기질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까다롭게 여기고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아동의 낮은 자기능력 지각과 상관되었다.

활동수준이 비록 영아기의 까다로운 기질집단 분류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많은 연구자들이 영아기부터 아동기에 걸쳐 일관성 있게 기질의 주요 특성으로 보고있었다(Slabach, Horrow, & Wachs, 1991, in Pedlow, Sanson, Prior, & Oberklaid, 1993). 그러나 활동수준이 높은 것이 까다로운 특성인가, 혹은 활동수준이 낮은 것이 까다로운 것인가에 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Buss와 Plomin (1974)은 높은 활동성을 까다로운 특성이라고 보았으나 Buss와 Plomin의 EAS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조사한 바(최영희, 1993)에 따르면, 아동의 낮은 활동성이, 유의한 정도는 아니나,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와 상관되었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활동수준이 높은 것을 좋아한다고도 볼 수 없었는데, 자녀의 높은 활동수준은 부정적 정서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높은 활동수준을 지닌 아동을 어머니는 돌보기

어렵게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대하나, 아동 자신은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의미있는 정도는 아니나($r=.13$) 높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활동수준이 '까다로움'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Pedlow 등(1993)은 규칙성이 생물학적인 측면이 명백한 기질 영역으로서 영아부터 8세까지 계속 기질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cClowry 등(McClowry, Hegvik, & Teglassi, 1994)은 8세부터 12세아를 조사하여 기질을 요인분석 한 결과 지구성과 규칙성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하였다. 지구성과 규칙성은 13세에 학업성취와 뚜렷한 상관을 보이는 기질 영역이기도 하였다(Guerin 등, 1994).

지구성은 영아기에는 까다롭거나 순한 기질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Thomas 등, 1968), 3세 이후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Earls, 1981)에서 지구성을 까다로운 기질로 보기 시작하였다. Pedlow 등(1993)의 종단적 연구에서도 3세가 지나서야 지구성이 주요 기질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아동기에는 특히 학업성취와 상관됨으로써(Martin et al., 1985; Patisin, 1986; Pullis, 1979; Goldstein et al., 1986) 주요 기질 특성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기분이 부정적인 것이 '까다로움'이라고 하였는데(Hubert & Wachs, 1982), 아동기를 조사한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에게 까다롭게 지각되고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계되고 있었다. Pedlow 등(1993)의 연구에서도 부정적 기분을 많이 보이고 달래기 어려운 특성인 성급함(Irritability)이 '까다로움'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활동성, 규칙성, 기분, 그리고 지구성은 아동기에 나타나는 주요 기질특성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규칙성은 생물학적인 특성으로써 생 후 초기부터 아동기에 걸쳐 계속 주요한 기질 특성이었다. 기분 역시 생 후 초기부터 아동기에 걸쳐 돌보기 어렵거나 쉽다고 인식하는 데 기여하는 특성이었다. 지구성은 3세 이후부터 주요한 기질 특성이 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생활습관이 불규칙하며, 기분이 부정적이고, 과제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

는 특성이 까다로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 본 연구에서 활동성이 기질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돌보기 어렵게 인식하고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상관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는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 선행 연구들에서도 활동성의 방향과 까다로움에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의 연구들에서 탐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기질측정 도구의 하위영역 별 신뢰도가 낮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해보는 아동기질질문지(MCTQ)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양호도가 낮거나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문항들을 제거하고 사용하였다. 그 결과 4 혹은 5문항으로 하나의 기질영역을 조사하게 되어 영역 별 신뢰도가 낮아지는 제한점을 보였다.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항을 빼는 대신, 우리 문화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도구 제작자들 중 Carey를 제외한 두 명(McClowry & Hegvik)은 기질영역들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있으므로 요인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McClowry et al., 1993). 아홉개의 기질 영역이 중복되는 것이 있고, 연구결과 해석이 일목요연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요인분석하여 기질 요인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기질을 조사하는 추후 연구들은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보다 진전된 연구를 진행시키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정민, 윤진(1992). 청소년기 기질 적합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5, 55-72.
- 2) 유명희(1990). 온순한 유아와 까다로운 유아의 울음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반응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3) 정현희(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 박사학위 청구논문.
- 4) 천희영(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5) 최영희(1989). 기질특정의 타당성 조사 연구. 원우론총, 7, 137-154.
 - 6) _____ (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7) _____ (1991). 기질개념 규명을 위한 일 연구. 아동연구, 6, 63-79.
 - 8) _____ (1993). 기질과 환경 간의 “조화로운 합치” 모델 검증연구(I): 조화로운 합치 정도와 양육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 217-226.
 - 9) _____ (1994). 기질과 환경 간의 조화로운 합치모델 검증연구(II): 조화로운 합치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한국아동학회지, 15, 145-157.
 - 10) _____ (1995). 유아 기질과 어머니 심리적 안정성의 양육태도 설명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 187-196.
 - 11) Bates, J.E.(1980). The concept of difficult temperament. *Merrill-Palmer Quarterly*, 26, 299-319.
 - 12) Bates, J.E., Olson, S.L., Pettit, G.S., & Bayles, K.(1982). Dimensions of individuality in the mother-infant relationship at six month of age. *Child Development*, 53, 446-461.
 - 13) Buss, A.H. & Plomi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14) Campbell, S.(1979). Mother-infant interaction as a function of maternal ratings of temperament. *Child Psychology and Human Development*, 10, 67-76.
 - 15) Cameron, J.R.(1977). Parental treatment,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 risk of childhood behavioral problems: 1.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children's temperament over tim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7, 568-576.
 - 16) Caspi, A. & Silva, P.A.(1995). Temperamental Qualities at age three predict personality traits in young adulthood: Longitudinal evidence from birth cohort. *Child Development*, 66, 486-498.
 - 17) Crockenberg, S.B.(1986). Are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babies associated with predictable differences in caregiving? In J.V.Lerner & R.M. Lerner(Eds.) *Temperament and social interaction in infant and children*. Jossey-Bass.
 - 17) Crockenberg, S.B. & Smith, P.(1982). Antecedents of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infant irritability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lif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5, 105-119.
 - 18) Dunn, J. & Kendrick, C.(1980). Studying temperament and parent-child interaction: Comparison of interview and direct observation.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22, 484-496.
 - 19) Earls, F.(1981). Temperament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problems in three-year-old childre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9, 367-373.
 - 20) Goldstein, F.G., Rollins, H.A., & Miller, S.H. (1986). Temperament and cognitive style in school-age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32, 263-283.
 - 21) Guerin, D.W., Gottfried, A.W., Oliver, P.H., & Thomas, C.G.(1994). Temperament and school functioning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00-225.
 - 21) Hegvik, R.L., McDevitt, S.C., Carey, W.B.(1982). The Middle Childhood Temperament Questionnair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3, 197-200.
 - 22) Hubert, N.C. & Wachs, T.D.(1985). Parental perceptions of the behavioral components of infant easiness and difficultness. *Child Development*, 53, 1525-1537.
 - 23) Lee, C.L. & Bates, J.E.(1985). Mother-infant interaction at age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314-1325.

- 24) Lerner, J.V., Lerner, R.M., & Zabski, S.(1985). Temperament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ctual and rated academic performances: A test of a 'goodness-of-fit' model.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 125-136.
- 25) Martin, R.P. & Holbrook, J.(1985). Relationship of temperament and characteristics to the academic achievement of first-grade children.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3, 131-140.
- 26) Martin, R.P., Nagle, R., & Paget, K.(1983). Relationships between temperament and classroom behavior, teacher attitudes,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 377-386.
- 27) McClowry, S.G., Hegvik, R.L., & Teglassi, H. (1993). An examination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Middle Childhood Temperament Questionnaire. *Merrill-Palmer Quarterly*, 39, 279-293.
- 28) Millions, J.(1978).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hild temperament and maternal behaviors. *Child Development*, 49, 1255-1257.
- 29) Palisin, H.(1986). Preschool temperament and performance on achievement tes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66-770.
- 30) Pedlow, R., Sanson, A., Prior, H., & Oberklaid, F.(1993). Stability of maternally reported temperament from infancy to 8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98-1007.
- 31) Slabach, E.H., Horrow, J., & Wachs, T.D.(1991). Questionnaire measurement of infant and child tempera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 J.Strelau & A.Angleitner(Eds.). *Explorations in temperam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of theory and measurement*. NY: Plenum Press, 205-234.
- 32) Thomas, A., Chess, S., & Birch, H.G.(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33) Thomas, A. & Chess, S.(1983). Temperament and parent-child interaction. In W.Damon(Ed.).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Y: W.W.Norton & Company.
- 34) Windle, M., Hooker, K., Lerner, K., East, P.L., Lerner, J.V., & Lerner, R.M.(1986). Temperament, perceived competence, and depression in early and late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84-392.